

韓方處方構成原理의 科學的 解釋研究 (IV)

- 金匱要略 處方の 統計的 分析研究 -

鄭賢植* · 張峻福* · 金南宰** · 宋炳基*

ABSTRACT

Scientific Analysis of Fundamental Formulation Theory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al Polyprescription (IV)

- Statistical Analysis of Gum-goe-yo-rak Prescriptions -

Hyun-Sik Jeong*, Jun-bock Jang*, Nam-jae Kim**, Byoung-key Song*

*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 East-West Medical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was made to objectify the principle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s so that we could obtain the principle and the formulation of them. For that purpose, we analysed the formula and rule of 205 prescriptions recorded in 「Gum-goe-yo-rak」, which have a few of components, and are widely used in clinical from ancient times to these days.

At first we classified those prescriptions by their effect. Then we re-classified the herbs of the effect groups into four natures (cold, hot, warm and cool) and five kinds of flavors (sour, bitter, sweet, acrid and salty). And we classified the herbs into three grades - superior, medium, and inferior - which were used in Shen Nong's Herbal Classic. By these means, we statistically evaluated the prescriptions recorded in 「Gum-goe-yo-rak」 based on the Four Regular Components(Monarch, Minister, Assistant, and Laborer).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인과학교실

** 경희대학교 동서의학 연구소

※ 본 논문은 199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보건의료기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에 의해 수행하였음

As a result we could obtain some facts about the prescriptions recorded in 「Gum-goe-yo-ra k」, those are what kind of herbal material was used frequently and distribution of the natures, flavors and grades according to thier effects. And we are sure that these results can be great help for establishment of fundamental formulation of theory of traditional herbal medicinal polyprescription.

1. 緒 論

方劑는 理, 法, 方, 藥中의 한 구성부분으로 반드시 辨證立法을 기초로 하여야만이 尙當하게 운용할 수 있으므로 먼저 方劑와 治法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정확한 方劑를 구성하여 투약할 수 있다. 治法이란 治療大法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는 臨床證候를 근거로 辨證救因하여 확정된 病因을 기초로 審因論治를 진행하는 데서 制定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治法이 확정된 위에 임상에 운용하기 위한 方劑를 조성하거나 新方을 創出하는 것이 원칙이다^{3),5),16)}. 따라서 方劑란 治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治法이 있는데 藥方이 없다는 것은 治法이 나오지 않았거나 辨證論治의 전과정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다³⁾.

韓醫學의 治法은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개괄하여 “八法”으로 요약가능하다. 八法이란 汗·吐·下·和·溫·清·消·補法을 말하며 治療大法이 된다. 八法의 源流는 <內經>에 기재되어 있고 傷寒論에 이르러서 八法의 내용은 더욱 진보되고 충실하게 되었으며 清代 程鐘齡이 <醫學心悟>에 八法을 계통적으로 논술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東漢時代 張仲景의 저서인 <傷寒雜病論>은 方書의 元祖로 존중되고 있으며 方劑學의 형성과 발전의 기초를 이룩하였다.^{3),5),7)}

<傷寒雜病論>은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이루어지며 최초의 임상 전문 서적으로 漢代 삼백여 년의 臨床實踐經驗을 총괄하고, 內經의 기본이론과 연계를 시켜, 東洋醫學의 辨證論治에 있어서의 기초를 설정하였으며, 熱性전염병이외의 기타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초보적인 辨證論治를 하고 있다. 本 書에는 삼백여개의 유효한 方劑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方劑들은 지금도 東醫處方用藥의 기초가 되고 있다.⁸⁾

傷寒雜病論에 대한 歷代 醫家들의 연구는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 보고가 있다. 특히 최근에 金⁹⁾ 등에 의해 韓方處方構成原理의 과학적 해석연구에서 傷寒論處方の 통계적 분석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金 등의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金匱要略¹⁸⁾에 收載된 모든 方劑에 대하여 사용된 약재의 빈도수를 조사하고, 이를 한방치료의 대법인 八法에 따라서 처방의 빈도수를 분류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구성 한약재의 四氣와, 五味에 의해 분류통계처리하며, <神農本草經>^{11),13)}의 三品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약간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研究方法

1) 본 연구에 기본자료로 사용된 것은 明 趙開美가 復刻한 <金匱要略>¹⁸⁾이었으며, 金匱要略 25편중 後人の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⁶⁾ 마지막 雜療方 3편을 제외한 22편에 수재된 205개처방<표 1>^{10),15),18)}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2) 일차적으로 205개 처방을 八法으로 分類분류하였으며, 이는 段¹⁰⁾ 등이 저작한 <金匱要略手冊>을 따랐다.

<표 1> 금궤요락에 수재된 205개 처방

갈근탕	남야탕	배농탕	소승기탕	적소두당귀산
감강령출탕	달간산	백두옹가감초야교탕	소시호탕	적환
감매대조탕	당귀진중탕	백두옹탕	소아감충식치방	정력대조사폐탕
감수반하탕	당귀산	백엽탕	소청룡가석고탕	조협환
감초진강탕	당귀생강양육탕	백출부자탕	소청룡탕	주마탕
감초마황탕	당귀작약산	백출산	속명탕	죽엽탕
감초부자탕	당귀폐모고삼환	백합계자황탕	승마별갑탕	죽피대환
감초분필탕	대건중탕	백합세방	승마별갑탕거용황촉초탕	지실백출탕
감초사심탕	대반하탕	백합지모탕	시호거반하가과루근탕	지실작약산
감초탕	대승기탕	백합지황탕	시호계강탕	지실해백계지탕
건강인삼반하환	대시호탕	백합활석산	시호계지탕	지주산
계강초조마신부자탕	대청룡탕	백호가계지탕	신기환	천응산
계령오미감초탕	대황감수탕	백호가인삼탕	십조탕	초석범석산
계시백산	대황감초탕	범석탕	영감오미강신반하탕	축철산
계지가계탕	대황목단피탕	범석환	영감오미강신탕	출부탕
계지가용골모려탕	대황부자탕	별강전환	영계출감탕	치자대황탕
계지가황기탕	대황자충환	복감강미신하인황탕	오두계지탕	치자사탕
계지거작약가조협탕	대황초석탕	복령감초오미강신탕	오두적석지환	택사탕
계지구역탕	도화탕	복령계지감초대조탕	오두전	택철탕
계지복령환	두풍나산	복령용염탕	오두탕	토과근산
계지부자탕	려호감초탕	복령음	오령산	통맥사역탕
계지생강지실탕	마자인환	복령택사탕	오매환	팔미환
계지작약지모탕	마황가출탕	복령행인감초탕	오수유탕	포회산
계지탕	마황부자탕	부자갱미탕	온경탕	풍인탕
고삼탕	마황순주탕	부자탕	왕불유행산	하어혈탕
과루계지탕	마황행인의이감초탕	분돈탕	응황	행자탕
과루구맥환	맥문동탕	사간마황탕	월비가반하탕	홍랍화주
과루모려산	모려탕	사리권산	월비가출탕	활석대자탕
과루해백반하탕	목방기거석고가복령탕	사상자산	월비탕	활석백어산
과루해백백주탕	초탕	사심탕	위경탕	황금가반하생강탕
파채산	목방기탕	사역탕	의이부자산	황금탕
교강탕	문합산	산조인탕	의이부자폐장산	황기건중탕
교애탕	문합탕	삼물황금탕	인삼탕	황기계지오물탕
구감초탕	반하건강산	삼황탕	인진오령산	황기작계고주탕
구통환	반하마황환	생강감초탕	인진호탕	황련분
규자복령산	반하사심탕	생강반하탕	일물과채탕	황토탕
굴지강탕	반하후박탕	서여환	자삼탕	후박대황탕
굴피죽여탕	방기복령탕	선복화탕	저고발전	후박마황탕
굴피탕	방기지황탕	소견중탕	저당탕	후박삼물탕
길경백산	방기촉력대황환	소반하가복령탕	저령산	후박칠물탕
길경탕	방기황기탕	소반하탕	저령탕	후서흑산
	배농산			

3) 상기 2)의 방법으로 분류된 각치법에 속한 처방들에 대하여 구성한약재를 四氣五味로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에는 李⁴⁾ 등의 <本草學>을 우선으로 하였고, 이에 未記載된 藥材는 江蘇新醫學編¹²⁾의 <中藥大辭典>을 참조하였다.

4) 상기 2)의 방법으로 분류된 각치법에 속한 처방들에 대하여 구성한약재를 三品分類하였는데, 이 분류는 陶¹¹⁾의 <神農本草經集注>를 따랐다.

5) 상기 3), 4)의 연구에서 灶下恢, 新絳, 粉, 馬通汁 등의 韓藥材는 상기 도서에 未記載되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2.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구성한약재 사용 빈도수의 조사

金匱要略에 收載된 205개의 처방중에 사용된 한약재의 수(25편중 잡료방 3편을 제외함)는 156가지이며, 총 사용빈도는 977회 였다. 한약재별로는 감초가 88회로 가장 많았고, 계지 56회, 생강

51회, 대조 48회, 반하 36회, 작약 35회, 건강 32회, 복령 30회, 인삼 29회, 부자 26회, 백출 25회, 마황, 대황은 23회, 황금은 20회가 사용되었으며 기타의 약물들은 20회 미만의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金匱要略에 사용된 약물과 빈도수

빈도수	한약재	빈도수	한 약 재
88	감초	16	지실, 세신
56	계지	15	당귀, 행인
51	생강	13	석고
48	대조	11(3)	후박, 궁궁, 아교
36	반하	9(3)	오미자, 모려, 주
35	작약	8(2)	황기, 견지황
32	건강	7(5)	시호, 황련, 길경, 도인, 택사
30	복령	6(7)	백합, 봉밀, 방기, 활석, 단피, 촉초, 과루근
29	인삼	5(6)	갱미, 지모, 방풍, 오두, 용골, 꿀피
26	부자	4(10)	방초, 황백, 치자, 맥동, 서여, 의이인, 정력, 자충, 범석, 교이
25	백출	3 (17)	갈근, 향시, 생지황, 별갑, 과루실, 해백, 오수유, 저령, 적석지, 감수, 파두, 옹황, 촉칠, 소맥, 대맥, 고삼, 초석(적초)
23	마황 대황	2 (22)	승마, 인진호, 백두옹, 진피, 죽여, 폐모, 계자황, 마인, 산수유, 구맥, 적소두, 과채, 과변, 조협, 애엽, 수지, 망충, 난발, 낭야, 자삼, 문합, 사간
20	황금	1 (62)	대자석, 자위, 강낭, 서부, 봉와, 조하회, 석위, 운모, 국화, 한수석, 백석지, 염, 자석영, 독활, 천웅, 백미, 두황권, 곡, 산조인, 건칠, 제조, 달간, 관동화, 자완, 택칠, 백전, 위경, 감리근백피, 진주, 양육, 선복화, 신강, 충, 대극, 완화, 촉목, 포회, 용염, 백어, 고주, 저지, 백엽, 마통즙, 조심토, 사리권, 패장, 상근백피, 왕불유행, 삭조세엽, 여호, 계미백, 지주, 분, 오매, 규자, 죽엽, 백미, 백실, 소엽, 토과근, 홍란화, 사상자인
수재된 한약재수		156	한약재의 누적사용빈도 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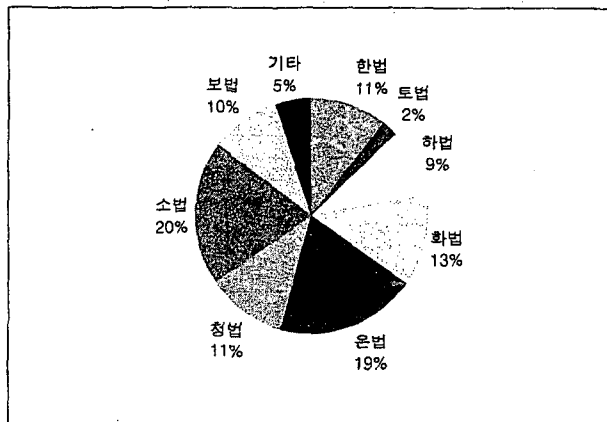
3. 金匱要略 처방의 八法에 따른 빈도수와 多用된 한약재

1) 金匱要略에 收載된 205개 처방중 消法이 42개 20.5%로 가장 많았으며, 溫法이 39개 19%, 和法이 26개 12.7%, 汗法이 22개 10.7%, 淸法이 22개 10.7%, 補法이 20개 9.8%, 下法이 19개 9.3%, 기타(外用藥)가 10개 4.9%, 吐法이 5개 2.4%를 보였으며 <표 3>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그림 1>에 도표로 표시하였다.

등 사용되었으며, 和法에서는 감초 17회, 계지 13회 등이 사용되었고, 溫法에서는 감초 16회, 건강 14회 등, 淸法에서는 감초 7회, 백합 5회, 대황 4회 등, 消法에서는 복령 15회, 감초 12회, 계지 11회 등, 補法에서는 감초 14회, 대조 12회 등이 사용되었으며, 기타 외용제로 범석, 응황 2회 등이 사용되었으며 <표 4>에 나타나 있으며, <그림 2>에 도표로 표시하였다. 처방에 사용된

<표 3> 치법에 따른 처방빈도수

한법 (汗法)		토법 (吐法)		하법 (下法)		화법 (和法)		온법 (溫法)		청법 (淸法)		소법 (消法)		보법 (補法)		기타 (外用藥)		계	
처방수	%	처방수	%	처방수	백분율	처방수	%	처방수	%	처방수	%	처방수	%	처방수	%	처방수	%	처방수	%
22	10.7	5	2.4	19	9.3	26	12.7	39	19	22	10.7	42	20.5	20	9.8	10	4.9	20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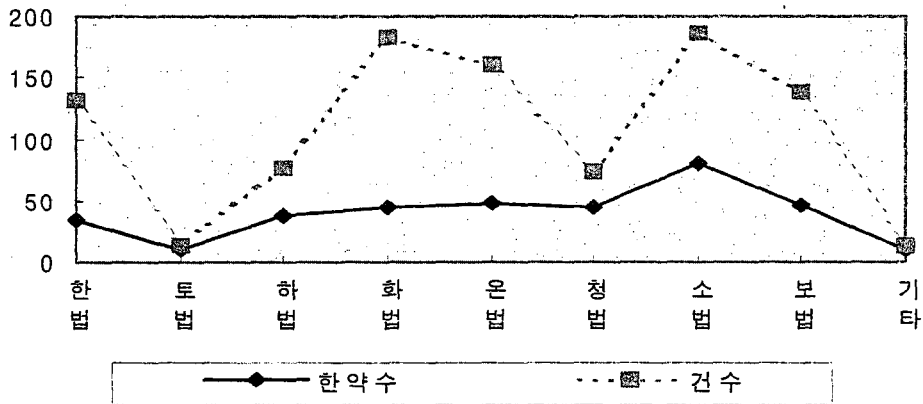
<그림 1> 치법에 따른 처방빈도수

2) 治法別로 多用된 한약재는 汗法에서 사용된 34개 한약재중 감초 17회, 마황 15회 등이 多用되었으며, 吐法에서는 감초 2회, 촉칠 2회, 과제 2회 등, 下法에서는 대황 14회, 지실, 후박 6회

평균한약재의 수는 4.8종으로, 和法, 補法이 각각 7종, 汗法 6종, 消法 4.5종, 下法, 溫法이 각각 4.1종, 淸法 3.4종, 吐法 2.6종, 기타(外用藥)이 1.3종을 보였다.

<표 4> 치법별 다용된 한약재

치법(治法)	한약수	건수	한약재(사용건수)
한법(汗法)	34	131	감초(17), 마황(15), 생강(12), 대조(12), 계지(11), 부자(7) 석고(6), 행인(6), 작약(5), 반하(4) 백출(4), 기타(3회이하)
토법(吐法)	10	13	감초(2), 촉질(2), 과채(2), 기타(1)
하법(下法)	37	77	대황(14), 지실(6), 후박(6), 감초(3), 대조(3), 반하(3) 작약(3), 망초(3), 감수(3), 기타(2회이하)
화법(和法)	45	183	감초(17), 계지(13), 생강(11), 대조(11), 황금(11) 인삼(9) 건강(9), 세신(6), 당귀(5), 백출(5), 궁궁(5), 모려(5), 시호(4) 기타
온법(溫法)	48	160	감초(16), 건강(14) 반하(10), 부자(10), 생강(9), 계지(8) 복령(6), 대조(5), 세신(5), 오두(5), 기타(4회이하)
청법(淸法)	44	74	감초(7), 백합(5), 대황(4), 황련(3), 활석(3), 치자(3), 기타(2회이하)
소법(消法)	81	187	복령(15), 감초(12), 계지(11), 생강(7), 작약(7), 백출(7) 대조(6), 인삼(5), 지실(5), 기타(4회이하)
보법(補法)	46	139	감초(14), 대조(12), 계지(11), 생강(10), 인삼(7), 작약(6) 복령(5), 건강(4), 백출(4), 건지황(4), 교이(4), 기타(3회이하)
기타(外用藥)	11	13	범석(2), 응황(2), 기타 (1회)
계	356	977	



<그림 2> 치법별 다용된 한약재

4. 金匱要略 처방의 八法에 따른 四氣의 분류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을 八法으로 분류하고 각 治法에 속하는 처방구성한약재의 분포를 四氣에 따라 汗, 熱, 溫, 涼, 平으로 구분한 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그림 3>에 도표로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溫性한약재가 429건 43.9%로 가장 많았으며, 寒性한약재가 277건 28.4%, 平性한약재가 186건 19%, 熱性한약재가 76건 7.8%, 涼性한약재가 5건 0.5%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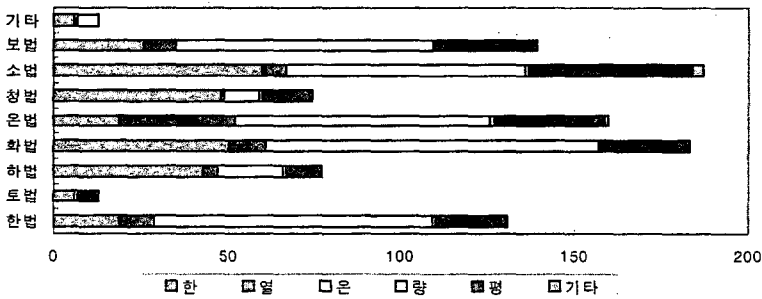
각 治法별로 보면 汗法은 溫性한약재가 80건

61.1%, 平性이 21건 16%며, 吐法은 寒性和 平性한약재가 각각 40건 46.2%며, 下法은 寒性한약재 43건 55.8%, 19건 24.7%며, 和法은 溫性이 96건 52.5%, 寒性이 50건 27.3%며, 溫法은 溫性한약재가 74건 46.3%, 熱性이 33건 20.6%, 平性이 32건 20%며, 淸法은 寒性한약재 48건 64.8%, 平性이 14건 18.9%, 溫性이 10건 13.5%며, 消法은 溫性한약재가 69건 36.9%, 寒性이 60건 32.1%며, 補法은 溫性이 74건 53.2%, 平性이 30건 21.6%, 寒性이 26건 18.7%며, 外用藥은 溫性和 寒性한약재가 각각 6건 46.2%였다.

<표 5> 치법별 사기의 빈도수

四氣 八法	한(寒)		열(熱)		온(溫)		량(涼)		평(平)		기타		계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법(汗法)	9 26.5	19 14.5	3 8.8	10 7.6	17 50	80 61.1	1 2.9	1 0.8	4 11.8	21 16.0	0 0	0 0	34 100	131 100
토법(吐法)	5 50	6 46.2	0 0	0 0	1 10	1 7.6	0 0	0 0	4 40	6 46.2	0 0	0 0	10 100	13 100
하법(下法)	18 48.7	43 55.8	3 8.1	4 5.2	8 21.6	19 24.7	1 2.7	1 1.3	7 18.9	10 13.0	0 0	0 0	37 100	77 100
화법(和法)	16 35.6	50 27.3	2 4.4	11 6.0	20 44.4	96 52.5	0 0	0 0	7 15.6	26 14.2	0 0	0 0	45 100	183 100
온법(溫法)	12 25	19 11.9	5 10.4	33 20.6	23 47.9	74 46.3	1 2.1	1 0.6	6 12.5	32 20.0	1 2.1	1 0.6	48 100	160 100
청법(淸法)	26 59.0	48 64.8	1 2.3	1 1.4	8 18.2	10 13.5	1 2.3	1 1.4	8 18.2	14 18.9	0 0	0 0	44 100	74 100
소법(消法)	33 40.8	60 32.1	4 4.9	7 3.7	27 33.4	69 36.9	1 1.2	1 0.5	13 16.0	47 25.1	3 3.7	3 1.6	81 100	187 100
보법(補法)	12 26.1	26 18.7	3 6.5	9 6.5	20 43.5	74 53.2	0 0	0 0	11 23.9	30 21.6	0 0	0 0	46 100	139 100
기타(外用藥)	6 54.5	6 46.2	1 9.1	1 7.7	4 36.4	6 46.2	0 0	0 0	0 0	0 0	0 0	0 0	11 100	13 100
계	137 38.1	277 28.4	22 6.2	76 7.8	128 36.0	429 43.9	5 1.4	5 0.5	60 16.9	186 19.0	4 1.1	4 0.4	356 100	977 100

<그림 3> 치법별 사기의 빈도수



5. 金匱要略 처방의 八法에 따른 五味 분류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을 八法으로 분류하고 각 治法에 속하는 처방구성약재의 분포를 五味에 따라 산(酸), 고(苦), 감(甘), 신(辛), 함(鹹), 담(淡)·삼(澁)으로 구분한 결과 <표 6>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그림 4>에 도표로 표시하였다. 여기에서 약재의 味는 하나만 있지 않고 둘 이상 있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으로 甘味 478건 34.3%, 辛味 431건 30.9%, 苦味 345건 24.8%, 酸味 82건 5.9%, 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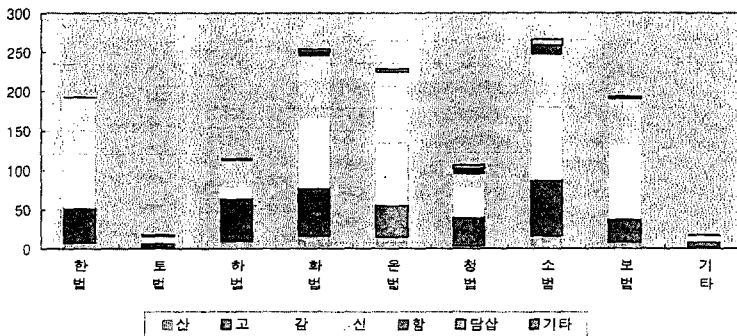
澁味 23건 1.7%를 보였다.

각 治法별로 분류하면 汗法은 辛味 76건 39.2%, 甘味 63건 32.5%며, 吐法은 苦味, 甘味, 辛味が 5건 27.8%며, 下法은 苦味 54건 47%, 辛味 32건 27.8%며, 和法은 甘味 88건 34.6%, 辛味 80건 31.5%, 溫法은 辛味 91건 39.7%, 甘味 79건 34.5%며, 淸法은 甘味 39건 36.8%, 苦味が 36건 34%며, 消法은 甘味が 94건 35.3%, 苦味が 70건 26.3%, 辛味が 66건 24.8%며, 補法은 甘味が 93건 48.2%, 辛味が 59건 30.6%며, 기타(外用藥)이 苦味が 7건 38.9%, 辛味が 6건 33.3%였다.

<표 6> 치법별 오미의 빈도수

五味 八法	산(酸)		고(苦)		감(甘)		신(辛)		함(鹹)		담(淡), 삼(澁)		기타		계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법(汗法)	3 5.5	8 4.1	15 27.3	44 22.7	16 29.1	63 32.5	18 32.7	76 39.2	2 3.6	1 2.0	1 1.8	1 0.5	0 0	0 0	55 100	194 100
토법(吐法)	1 6.7	1 5.6	4 26.7	5 27.8	4 26.7	5 27.8	4 26.7	5 27.8	1 6.7	1 5.6	1 6.7	1 5.6	0 0	0 0	15 100	18 100
하법(下法)	2 3.8	10 8.7	22 42.3	54 47.0	10 19.2	15 13.0	16 30.7	32 27.8	2 3.8	4 3.5	0 0	0 0	0 0	0 0	52 100	115 100
화법(和法)	5 7.6	17 6.7	19 28.8	60 23.6	20 30.3	88 34.6	18 27.3	80 31.5	1 1.5	5 2.0	3 4.5	4 1.6	0 0	0 0	66 100	254 100
온법(溫法)	6 8.1	15 6.6	20 27.0	40 17.5	20 27.0	79 34.5	24 32.4	91 39.7	0 0	0 0	3 4.1	3 1.3	1 1.4	1 0.4	74 100	229 100
청법(淸法)	4 6.3	4 3.8	19 29.7	36 34.0	23 35.8	39 36.8	11 17.2	16 15.1	4 6.3	6 5.6	3 4.7	5 4.7	0 0	0 0	64 100	106 100
소법(消法)	6 5.0	16 6.0	33 27.8	70 26.3	30 25.2	94 35.3	37 31.1	66 24.8	10 8.4	13 4.9	3 2.5	7 2.6	0 0	0 0	119 100	266 100
보법(補法)	3 4.5	9 4.7	16 24.3	29 15.2	25 37.9	93 48.2	20 30.3	59 30.6	1 1.5	1 0.5	1 1.5	2 1.0	0 0	0 0	66 100	193 100
기타 (外用藥)	1 6.2	2 11.1	7 43.8	7 38.9	2 12.5	2 11.1	5 31.3	6 33.3	1 6.2	1 5.6	0 0	0 0	0 0	0 0	16 100	18 100
계	31 5.9	82 5.9	155 29.4	345 24.8	150 28.5	478 34.3	153 29.0	431 30.9	22 4.2	33 0.3	15 2.8	23 1.7	1 0.2	1 0.1	527 100	1393 100

<그림 4> 치법별 오미의 빈도수



6. 金匱要略 처방의 八法에 따른 三品の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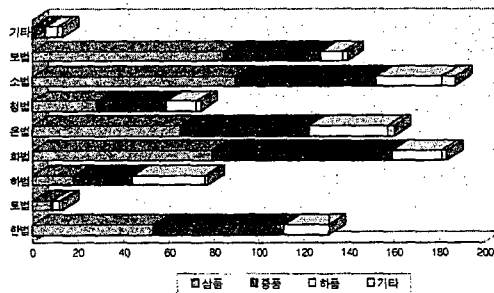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을 八法으로 분류하고 각 治法에 속하는 처방구성 한약재의 분포를 神農本草經集注에 收載된 三品분류에 따라 上品, 中品, 下品으로 구분한 결과 <표 7>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며, <그림 5>에 도표로 표시하였다. 156한약중에 142개가 三品분류가 되어있다. 총 977건중 上品에 속하는 한약재가 435건 43.5%며, 중품이 364건 37.3%며, 下品이 109건 17.3%였다. 各治法別로 보면 汗法은 中品이 58건 44.3%, 上品이 53건 40.5%며, 下品이 20건 15.2%며, 吐法은 上品이 8건 61.5%, 下品이 3건 23.1%며, 中品

이 1개 7.7%며, 下法은 下品이 32건 41.5%, 中品 26건 33.8%, 上品이 18건 23.4%며, 和法은 中品이 80건 43.7%며, 上品이 79건 43.2%, 下品이 22건 12%며, 溫法은 上品이 65건 40.6%며, 中品이 57건 35.6%며, 下品이 35건 21.9%며, 淸法은 中品이 31건 41.9%며, 上品이 28건 37.8%며, 下品이 13건 17.6%며, 消法은 上品이 89건 47.6%며, 中品이 63건 33.7%, 下品이 29건 15.5%며, 補法에서는 上品이 84건 60.5%며, 中品이 43건 30.9%며, 下法이 10건 7.2%를 나타내고 기타(外用藥)에서는 中品, 下品이 각각 5건 38.5%, 上品이 1건 7.7%를 보였다.

<표 7> 치법별 신농본초경 삼품분류의 빈도수

八法	삼품		상품(上品)		중품(中品)		하품(下品)		기타		계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약수	건수
한법(汗法)	9 26.5	53 40.5	19 55.9	58 44.3	6 17.6	20 15.2	0 0	0 0	34 100	131 100		
토법(吐法)	6 60.0	8 61.5	1 10.0	1 7.7	2 20.0	3 23.1	1 10.0	1 7.7	10 100	13 100		
하법(下法)	12 32.4	18 23.4	12 32.4	26 33.8	12 32.4	32 41.5	1 2.8	1 1.3	37 100	77 100		
화법(和法)	13 28.9	79 43.2	22 48.9	80 43.7	8 17.8	22 12.0	2 4.4	2 1.1	45 100	183 100		
온법(溫法)	16 33.3	65 40.6	17 35.4	57 35.6	12 25.0	35 21.9	3 6.3	3 1.9	48 100	160 100		
청법(淸法)	18 40.9	28 37.8	16 36.4	31 41.9	9 20.5	13 17.6	1 2.3	2 2.7	44 100	74 100		
소법(消法)	27 33.3	89 47.6	31 38.3	63 33.7	17 21.0	29 15.5	6 7.4	6 3.2	81 100	187 100		
보법(補法)	22 47.8	84 60.5	16 34.8	43 30.9	6 13.0	10 7.2	2 4.4	2 1.4	46 100	139 100		
기타(外用藥)	1 9.1	1 7.7	4 36.4	5 38.5	5 45.4	5 38.5	1 9.1	2 15.3	11 100	13 100		
	124 34.8	425 43.5	138 38.8	364 37.3	77 21.6	169 17.3	17 4.8	19 1.9	356 100	977 100		

<그림 5> 치법별 신농본초경 삼품분류의 빈도수



III. 考 察

方劑의 형성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원시사회에서는 질병을 예방또는 치료하기 위해서 單味약물을 이용하였고, 그후 장기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하여 약물의 지식이 점차 누적되고 그 결과가 질병치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어 單味藥에서 多味藥으로 치병하는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方劑를 구성하는 한약재의 효능에는 각각 長點도 있지만 短點도 있다. 그래서 오로지 합리적인 처방만이 그 偏勝을 조절하고, 그 毒性을 제거하여 원래의 효능을 증강, 혹은 바꿀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인체에 대한 불리한 素因을 제거하거나 緩解시키고 相補相成, 相反相成의 종합작용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을 지닌 群藥을 결합시켜 하나의 새롭고도 有機的인 整體로 만든 것이다.

이러한 方劑를 구성하기에 앞서서 人體의 정상적인 생리기능이 어떠한 病因에 의해 발병되었으며, 어떠한 經絡을 통하여 질병이 나타났는가를 韓醫學的 진단방법에 입각하여 진단하고, 진단된 결과를 가지고 八綱에 의거해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 위에서 병증에 적합한 약물을 배합함으로써 韓藥이 완성하게 된다³⁾.

따라서 方劑는 반드시 辨證立法을 기초로 하여야만이 합당하게 운용할 수 있고, 方劑와 治法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정확한 方劑를 구성하여 투약할 수 있다. 治法이란 治療大法를 말하며, 당연히 治法이 확정된 위에 임상에 운용하기 위한 方劑를 조성하거나 新方을 創出하는 것이 원칙이다. 治法은 “八法”으로 요약가능하며 汗·吐·下·和·溫·清·消·補法이다. 八法의 원류는 內經에 기재되어 있고 傷寒論에 이르러서 八法의 내용이 더욱 진보되고 충실하게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東漢時代 張仲景의 저서인 <傷寒雜病論

>은 方書의 元祖로 존중되고 있으며 方劑學의 형성과 발전의 기초를 이룩하였다^{3),5),7)}.

본래 傷寒論과 金匱要略은 張仲景의 저작당시 傷寒雜病論 16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후에 雜病論 6권 부분이 전해지지 않다가 宋時代에 <金匱玉函要略方>이 발견되었다. 이 책은 上卷은 傷寒論, 中卷은 雜病論, 下卷은 처방과 婦人病부분으로 구성되었다. 宋의 林億등이 이중 中, 下卷을 모은 것이 현재의 金匱要略이니 傷寒論은 외감열병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라면, 金匱要略은 잡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金匱要略의 처방들은 八法이 충실하게 적용되어 있다^{2),14),17)}.

汗法이란 肺氣를 宣發하여 營衛를 調暢하고 膜理를 開泄하는 작용을 하여 인체가 땀이 나도록 하여 表의 外感六淫의 邪氣를 땀을 따라 풀리도록 하는 치료법으로 辛溫解表와, 辛涼解表법이 있다. 吐法은 涌吐로 咽喉, 胸膈, 胃脘 등 부위에 있는 痰飲과, 宿食혹은 毒物을 입으로 吐出케하는 치료법으로 胃氣를 손상시키기 쉬워 體虛氣弱者나 특히 임신부에게는 삼가 해야한다. 下法은 腸胃를 蕩滌하여 腸中の 積滯, 혹은 積水, 瘀血을 瀉出시키는 것으로 腸胃에 정류되어 있는 宿食, 燥屎, 冷積, 瘀血, 結痰, 停水등을 下竅로 내보내어 邪氣를 제거하고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寒下, 溫下, 逐水, 攻補兼施의 구별이 있다. 和法은 和解 혹은 調和의 작용을 통하여 病邪를 제거하는 治法으로 汗, 吐, 下 三法의 오로지 邪氣를 공격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또한 補法의 오로지 正氣를 扶養하는 것과도 같지 않아 寒熱을 제거하고 그 한쪽으로 치우친 성질을 조절하며 부족을 扶養하여 병을 낮게 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며 和解少陽, 透達膜原하여 調和肝脾, 舒肝和胃, 分消上下, 調和腸胃등으로 분류된다. 溫法은 溫中, 祛寒, 回陽, 通絡등의 작용으로 寒邪를 제거하고 陽氣를 회복시키며,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맥을 조화하게 하는 治法으로 溫中祛寒, 回陽救逆, 溫經散寒의 구별이 있다. 清法은 清熱

瀉火로 火熱의 邪氣를 맑게 제거하는 것으로 裏熱症에 활용되며 淸氣分熱, 淸營涼血, 氣血兩淸, 淸熱解毒, 淸臟腑熱등의 구별이 있다. 오랜 병으로 陰虛하고 열이 속에 潛伏한 경우에 淸熱과 滋陰을 겸용한다. 消法은 消食導滯와 消堅散結의 작용을 통하여 氣, 血, 痰, 食, 水, 蟲등의 積聚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漸消緩散시키는 방법으로 消導食積, 消痞和癥, 消痰祛水, 消疳殺蟲, 消瘡散癰등으로 나눈다. 補法은 滋養을 통하여 人體氣血 陰陽을 補하여 인체장기나 혹은 기혈음양의 허약상태를 개선시키는 治法으로 補氣, 補血, 補陰, 補陽 및 陰陽并補, 氣血雙補등으로 분류한다¹⁶⁾.

이러한 治法은 方劑를 구성하고 있는 약재들의 四氣五味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四氣는 음양에 입각한 藥性의 분류체계로 인체에 미치는 생리활성도를 大別하여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溫熱의 작용은 陽性을 띠며 寒冷약물은 陰性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熱性약물과 寒性약물은 그 작용이 강하고 溫性약물과 冷性약물은 작용이 완만하여 서서히 치유되는 효과를 얻게 하고 있다. 그 외 기의 氣의 偏傾이 현저하지 않아 성질이 穩하여 있어 平性이라고 칭하는 것도 있다¹⁾.

熱性약물은 暢達을 위주로 하며 發熱, 興奮, 發汗, 刺戟作用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약물을 말한다. 溫性약물은 發育을 위주로 하며 緩和, 強壯, 升提, 補陽, 開胃, 通經絡, 止瀉, 散寒, 體溫上昇, 暖丹田, 祛痰, 安神, 理氣益氣, 行血止汗作用을 나타낸다. 寒性의 약물은 殺伐을 위주로 한다. 그러므로 解熱, 消炎, 鎮靜, 降火, 止血, 瀉下作用을 나타낸다. 涼性의 약물은 肅淸을 위주로 하며 寒性보다 그 작용이 미약하여 補陰, 止血, 降火시키고 淸熱作用으로 潮熱, 肌熱, 煩熱에 많이 활용된다.

味는 단순히 구강내의 미각세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생리적 기능을 향진시키기도 하며 감약시키기도 하고 평형을 이루는 조절기능을 갖추기도 한다.

辛味는 체내에 들어가서 助熱, 發散, 利竅, 潤燥, 開腠理, 上昇, 發汗, 健胃, 食慾을 증진시킨다. 甘味는 체내에서 근육의 弛緩作用과 飢餓와 疲勞回復을 풀어주며 潤腸, 發生, 上行, 補氣, 補陽, 解毒, 緩和, 止渴生津작용을 나타낸다. 酸味는 체내에 들어가 收斂시키는 작용이 있어 止嗽, 治遺精, 小便不禁, 斂熱, 斂散, 澀腸, 苦澀生津, 泄瀉, 止虛汗하는데 활용된다. 苦味는 체내에 들어가서 沈靜, 淸熱, 降泄, 堅脆, 燥濕, 消腫, 解毒, 消炎, 養血, 補陰, 瀉火, 瀉下작용을 나타낸다. 鹹味는 체내에서 柔軟작용을 일으켜 軟堅, 凝結, 沈下하여 治療癰癭瘤에 유효한 결과를 얻는다. 淡味는 下行, 利竅, 利尿작용이 있으며, 解熱작용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쓰인 神農本草經의 가치는 漢代藥物學의 성과를 총결한 것이며, 藥性의 寒溫을 強調했고, 아울러 每種 藥의 성능작용과 주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식의 획득은 주로 경험에서 연원하므로 그 가치가 중시된다. 본 서는 약물을 上, 中, 下의 三品으로 분류하여 上品은 養命을 主하고, 無毒하여 多服久服하여도 사람을 상하지 않으므로 輕身益氣, 不老延年을 바라는 데는 이것을 사용하며, 中品은 養性을 主하며 有毒과 無毒이 있으므로 參작하여 사용하고 병을 조화하며 虛羸를 보하는 데는 이를 사용하며, 下品은 治病을 主하며 多毒하므로 久服하여서는 안되며 병을 치료하는데는 이를 쓴다고 하였다⁴⁾. 이에 金匱要略에 收載된 모든 方劑에 대해서 사용된 약재의 빈도수를 조사하고, 이를 한방치료의 大法인 八法에 따라서 처방의 빈도수를 분류한 후, 그 결과를 다시 구성 한약재의 四氣와, 五味, 神農本草經의 三品에 따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金匱要略에 사용된 한약재의 빈도수를 보면 收載된 총 한약재 156가지중 10%에 해당하는 16종의 한약재가 전체 한약재 출현 빈도수 977건에 비하여 569건으로 58.2%를 차지하고 있다.

金匱要略에 收載된 205개 처방중 消法이 42개 20.5%로 가장 많았으며, 溫法이 39개 19%, 和法이 26개 12.7%, 汗法이 22개 10.7%, 淸法이 22개 10.7%, 補法이 20개 9.8%, 下法이 19개 9.3%, 기타(外用藥)가 10개 4.9%, 吐法이 5개 2.4%를 보였다. 傷寒論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解表藥이 가장 많이 쓰였으나, 金匱要略에서는 消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니 傷寒論은 外感 熱性病을 위주로 하였고 金匱要略은 雜病을 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消法の 적용범위가 氣, 血, 痰, 食, 水, 蟲 등의 積聚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各 治法別 多用된 약재를 보면 下法은 대황, 지실, 후박이 多用되고, 消法에서 복령이 多用되었고 그 외의 汗法, 吐法, 和法, 溫法, 淸法, 補法은 감초가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는 감초의 調和諸藥하고, 解毒, 和中緩急하는 효능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金匱要略에 수재된 처방에 사용된 평균한약재의 수는 4.8종으로 傷寒論에서 사용된 평균 4.9종과 유사하였고, 和法, 補法이 각각 7종, 汗法 6종, 消法 4.5종, 下法, 溫法이 각각 4.1종, 淸法 3.4종, 吐法 2.6종, 기타(外用藥)이 1.3종을 보였다.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을 八法으로 분류하고 처방구성한약재를 四氣에 따라 汗, 熱, 溫, 涼, 平으로 구분한 결과 전체적으로 溫性한약재가 429건 43.9%로 가장 많았으며, 寒性한약재가 277건 28.4%, 平性한약재가 186건 19%, 熱性한약재가 76건 7.8%, 涼性한약재가 5건 0.5%를 보였다. 이는 가장 多用된 약재인 감초의 平性, 계지의 溫性, 생강의 溫性, 대조의 溫性, 반하의 溫性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各 治法별로 보면 汗法은 溫性한약재가 80건 61.1%, 平성이 21건 16%며, 吐法은 寒性和 平性한약재가 각각 40건 46.2%로 신온해표법이 주로 사용되며, 下法은 寒性한약재 43건 55.8%, 溫性 19건 24.7%로 寒下와 溫下法이 많이 사용되었다.

和法은 溫성이 96건 52.5%, 寒성이 50건 27.3%로 和解혹은 調和의 법으로 病邪를 제거함에 寒性, 溫성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溫法은 溫性한약재가 74건 46.3%, 熱성이 33건 20.6%로 주로 溫熱의 약물로 溫中祛寒, 回陽救逆, 溫經散寒시키며, 淸法은 寒性한약재 48건 64.8%, 平성이 14건 18.9%, 溫성이 10건 13.5%로 주로 寒性의 약물이 다용되었고, 消法은 溫性한약재가 69건 36.9%, 寒성이 60건 32.1%며 消食導滯와 消堅散結작용으로 積聚를 漸消緩散할 때 溫성의 緩和 작용 등과, 寒성의 解熱 消炎 鎮靜 瀉下 등의 작용을 이용하였다. 補法은 溫성이 74건 53.2%, 平성이 30건 21.6%, 寒성이 26건 18.7%로 溫성의 緩和 強壯 保養 등의 작용을 多用하였다. 外用藥은 溫性和 寒性한약재가 각 6건 46.2% 였다.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을 八法으로 분류하고 各 治法에 따라 처방구성한약재를 五味의 酸, 苦, 甘, 辛, 鹹, 淡·澁으로 구분한 결과 전체적으로 甘味 478건 34.3%, 辛味 431건 30.9%, 苦味 345건 24.8%, 酸味 82건 5.9%, 淡·澁 23건 1.7%를 보였다. 이는 가장 多用된 약재인 감초의 甘味, 계지의 甘辛味, 생강의 辛味, 대조의 甘味, 반하의 辛味 등에 기인된다고 보인다.

各 治法별로 보면 汗法은 辛味 76건 39.2%, 甘味 63건 32.5%며, 吐法은 苦味, 甘味, 辛味が 5건 27.8%며, 下法은 苦味 54건 47%, 辛味 32건 27.8%며, 和法은 甘味 88건 34.6%, 辛味 80건 31.5%, 溫法은 辛味 91건 39.7%, 甘味 79건 34.5%며, 淸法은 甘味 39건 36.8%, 苦味が 36건 34%며, 消法은 甘味が 94건 35.3%, 苦味が 70건 26.3%, 辛味が 66건 24.8%며, 補法은 甘味が 93건 48.2%, 辛味が 59건 30.6%며, 기타(外用藥)이 苦味が 7건 38.9%, 辛味が 6건 33.3%를 나타내 汗法에서는 辛溫解表, 辛涼解表의 方法이 多用되며, 溫法에서는 辛味の 助熱작용과, 健胃작용이 多用되고 있고, 淸法에서는 淸熱작용의 苦味보다는 甘味が 多用되었으니 이는 한약의 감초의 甘

味를 多用하여 解毒, 緩和, 止渴生津작용을 위주로 하며, 아울러 苦味の 清熱작용을 사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下法은 苦味の 降泄작용이 多用되었으며 消法과 補法은 甘味로 脾胃를 調養하며, 消法에서는 苦味の 燥濕, 消腫, 解毒 등의 작용을 하며, 補法은 辛味の 健胃, 上昇 등의 작용을 하리라 생각된다.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을 八法으로 분류하여 각 治法에 속하는 처방의 처방구성한약재를 神農本草經集注에 收載된 三品분류에 따라 上品, 中品, 下品으로 구분한 결과 156 한약중에 142개가 三品분류가 되어있으며 총 977건중 한약재중 上品이 435건 43.5%며, 中品이 364건 37.3%며, 下品이 109건 17.3%로 人體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약물들을 多用하였음을 볼 수 있다. 각 治法별로 보면 汗法은 中品이 58건 44.3%, 上品이 53건 40.5%며, 下品이 20건 15.2%며, 吐法은 上品이 8건 61.5%, 下品이 3건 23.1%며, 中品이 1개 7.7%며, 下法은 下品이 32건 41.5%, 中品 26건 33.8%, 上品이 18건 23.4%며, 和法은 中品이 80건 43.7%며, 上品이 79건 43.2%, 下品이 22건 12%며, 溫法은 上品이 65건 40.6%며, 中品이 57건 35.6%며, 下品이 35건 21.9%며, 淸法은 中品이 31건 41.9%며, 上品이 28건 37.8%며, 下品이 13건 17.6%며, 消法은 上品이 89건 47.6%며, 中品이 63건 33.7%, 下品이 29건 15.5%며, 補法에서는 上品이 84건 60.5%며, 中品이 43건 30.9%며, 下法이 10건 7.2%를 나타내고 기타(外用藥)에서는 中品, 下品이 각각 5건 38.5%, 上品이 1건 7.7%를 보여 下法에서는 下品이나 中品の 약물을 多用하여, 治病위주의 방법이며, 汗法과 和法에서는 中品을 多用하였으니 이는 병의 상태를 관찰하여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補法과 溫法은 上品의 약이 多用되었으니 久服하여 養命하며, 輕身益氣하고, 不老延年하는 治法으로 생각되어진다. 消法의 경우에는 上品의 약이 多用되었으니, 이는 積聚를 漸消緩散방법으로 病勢가 堅固하고 緩慢하여,

신속한 掃除가 불가능한 경우에 久服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IV. 結 論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을 분류하여 통계 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金匱要略에 收載된 총 한약재의 수는 156가지며, 총 사용건수는 977건으로 이중 감초, 제지, 생강, 대조 등의 10%에 해당하는 16종의 한약재가 569건으로 58.2%를 차지하고 있다.

2.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 수는 205종으로 消法 42개 20.5%, 溫法 39개 19%, 和法 26개 12.7%, 汗法 22개 10.7%, 淸法 22개 10.7%, 補法 20개 9.8%, 下法 19개 9.3%, 기타(外用藥) 10개 4.9%, 吐法 5개 2.4%를 보였으며, 처방에 사용된 평균한약재의 수는 4.8종이며, 和法, 補法이 각각 7종, 汗法 6종, 消法 4.5종, 下法, 溫法이 각각 4.1종, 淸法 3.4종, 吐法 2.6종, 기타(外用藥)가 1.3종을 보였다.

3.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구성한약재를 四氣에 따라 구분한 결과 전체적으로 溫性, 寒性, 平性, 熱性, 涼性 순으로 多用되었으며 각 治法별로 汗法은 溫性, 平性, 吐法은 寒性(平性), 下法은 寒性, 溫性, 和法은 溫性, 寒性, 溫法은 溫性, 熱性, 平性, 淸法은 寒性, 平性, 溫性, 消法은 溫性, 寒性, 補法은 溫性, 平性, 寒性, 外用藥은 溫性(寒性) 순으로 多用 되었다.

4.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구성한약재를 五味로 구분한 결과 전체적으로 甘味, 辛味, 苦味, 酸味, 淡·澁 순으로 多用되었으며, 각 治法별로 보면 汗法은 辛味, 甘味, 吐法은 苦味(=甘味, =辛味), 下法은 苦味, 辛味, 和法은 甘味, 辛味, 溫法은 辛味, 甘味, 淸法은 甘味, 苦味, 消法은 甘味, 苦味, 辛味, 補法은 甘味, 辛味, 기타(外用藥)는 苦味, 辛味 순으로 多用 되었다.

5. 金匱要略에 收載된 처방구성한약재를 <神農

本草經集注>에 收載된 三品분류에 따라 분류한 결과 上品, 中品, 下品 순으로 多用되었으며 各治法별로 보면 汗法은 中品, 上品, 下品 순으로, 吐法은 上品, 下品, 中品 순이고, 下法은 下品, 中品, 上品 순이며, 和法은 中品, 上品, 下品 순이며, 溫法은 上品, 中品, 下品 순이고, 淸法은 中品, 上品, 下品 순이며, 消法은 上品, 中品이, 下品 순이며, 補法은 上品이, 中品, 下品 순으로 多用되었으며 기타(外用藥)에서는 中品(下品), 上品 순으로 多用되었다

方書의 元祖로 존중되고 있는 金匱要略을 이상과 같이 처방구성 약재 수를 통계분석하고, 治療大法인 八法에 의하여 처방구성약재를 四氣五味로 통계분석하고, 神農本草經의 三品분류를 통하여 한방처방구성원리의 객관적 지표를 세우는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1. 金完熙 등 : 韓醫學原論, 成輔社, pp.432-433, 1982.
2. 朴憲在 : 完譯金匱要略, 書苑堂, pp.35-39, 1986.
3. 李尙仁 : 方劑學, 永林社, p.3, 17-18, 1994.
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授 : 本草學, 永林社, pp.22-23, 61-62, 1991.
5. 朝鮮醫學科學院 東醫學研究所 : 東醫處方學, 여강출판사, p.8, 24, 1992.
6. 蔡仁植 : 金匱要略精解, 東洋通信大學出版社, p.6, 1965.
7. 許濟群 : 東醫方劑學, 陰陽脈診出版社, pp.53-54, 1991.
8. 洪元植 : 中國醫學史, 東洋醫學研究院, p.99, 1984.
9. 金남재 등 : 한방처방원리의 과학적 해석연구 II - 상한론 처방의 통계적 분석연구 -, 경희대학교 논문집 26집, pp.617-626, 1997.
10. 段光周 등 : 金匱要略手冊, 科學技術文獻出版社重慶分社, 1988.
11. 陶弘景 : 神農本草經集注, 人民衛生出版社, 1994.
12. 江蘇新醫學編 : 上海科學記述出版社, 中藥大辭典, 1995.
13. 王筠默 등 : 神農本草經校證, 吉林科學技術出版社, 1988.
14. 王叔和集 : 金匱要略方論, 人民衛生出版社, p.3-8, 1994.
15. 李克光 : 金匱要略, 人民衛生出版社, p.2, 1989.
16. 李大琦 : 中醫方劑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pp.8-11, 1988.
17. 李文瑞 : 金匱要略湯證論治, 中國科學技術出版社, p.2, 7, 1993.
18. 張仲景 : 仲景全書, 大星文化社, 1984.
19. 韓維恒 : 中藥正別名集,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3.